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2023

written by

President's List

‘성균인들의 삶에 +가 되는’

목 차

저자 프로필 04

내가 좋아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삶
문헌정보학과 / 앙트레프레너십 19 신민희 11

성균관대학생활 꿀팁이 있다면?
스포츠과학과 18 형수경 18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경제학과 17 이찬주 19

대학생,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비자학과 15 조진형 22

알차게 보낸 대학생활로 깔끔하게 진로 탐색하기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 경영학과 19 허정원 26

나를 알아가는 시간
약학과 15 정형기 30

여유는 없지만 해외 경험은 쌓고 싶은 학우들을 위한 Tips!
러시아어문학과 19 김나연 35

CONCENTS

저자 프로필

신 민 희 문헌정보학과 / 앙트레프레너십 19

minhee16@g.skku.edu

기부 및 봉사

2019~ 그린피스 환경활동가 및 정기후원자
2022 성미산 그린짐 환경정화 봉사
2022 혈액암협회 사무 봉사

창업

2020 KINGGO EPT 창업 동아리 활동
2021 Mondragon Team Academy Social Entrepreneurship Team Academy 수료

교내활동

2020 교육개발센터 성균튜터링 성실튜터
2020 성균관대학교 중앙 배드민턴 동아리 라켓챌린지 임원진
2021 중앙환경동아리 Re:Skku 창립 및 회장
2021 도전학기 기업시민 PTJ형 인턴십 포스코 환경팀 팀장
2021 President's List 3기
2022 Stockholm University 스웨덴 교환학생

대외활동

2020 유엔한국학생협회 UN의 날 행사 국회의원상
2020 FordX환경재단 환경 후원 프로그램 "우리가 Green 미래" 대표자
2021 국제청소년 사이버 환경 포럼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상
2021 헌법 1조 개정 제안 활동
2021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입문과정 수료
2021 대자연XRe:SKKU 미니멀라이프 프로젝트
2021 시민환경연구소 패널단 수료
2021 신한은행 29초 영화제 제작자

형 수 경 스포츠과학과 18

hyungsk0514@nate.com

2018 국가대표 발탁, 제5회 세계대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 출전 (2018. 7.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2018 ~ 2019 교양수영, 전공수영 조교
2019 전국 핀수영선수권대회 우수선수상 수립/전국 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 대학부 대회신기록 수립
2019 회장기 전국 핀수영대회 대학부 3관왕 수립
2020 Future-self Design 그룹코칭 프로그램 이수
2020 한국장학재단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 장학생
2020 North Americ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Conference (NASSM 2020) 논문 선정
2020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세계포럼 참가
2020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기획봉사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 필라테스 교육)

이 찬 주 경제학과 17

moon2cj@g.skku.edu

한국서부발전이 주최하는 2019년도 서부 위피스쿨에서 우수 멘토상 수상
2019년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대학생 멘토로 활동
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에 참가해
'인슈어테크를 접목한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으로 수상
제7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국제 혼인 외의 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법률 공모작으로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수상

조 진 형 소비자학과 15

nada0377@naver.com https://www.linkedin.com/in/jinhyeongjo/

2016 Global Forum for Financial Consumers 행사스태프
2016 자기설계융합전공 금융소비자학 복수전공
2016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와함께" 현장실습생
2019 이데일리 경제유니버시아드 경제논술 최우수상
2020 금융감독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KCI) 학부생 단독게재
2020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SKKU Finance Lab) 규제연구(KCI) 게재
2020 한국FP학회 FP CONTEST(재무설계 공모전) 장려상
2020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논문 공모전 우수상
2021 금융감독원 입사

저자 프로필

허 정 원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 경영학과 19

hiw990@naver.com

대외활동

2020 극지연구소 대학생 기자단 '폴라이터' 4기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기획재정부 예산국민참여단
청소년특별회의 선별직 온라인소통팀
틱톡 X 이십세들 '이십생활'
종로구 여성가족과 '안심zone 조성사업' 실행그룹

2021 틴더 공식 앰배서더 '틴더플레이메이커' 4기 여행팀
디지털 헬스케어 (주)라이프시맨틱스 - 암 치료 솔루션 플랫폼 '오하(OHA)'팀 콘텐츠 인턴

대내활동

2020 글로벌융합학부 제2대 학생회 사무기획국장
2021 글로벌융합학부 제3대 부학생회장
2022 실전마케팅학회 SCAN 대외협력부장

프로그램

2019-2020 성균관대학교 국제처 교환학생 프로그램 'SG Maple버디' 3회
2020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다음시 페스티벌 '시민이여' 영상팀장
2022 여름방학 도전학기 교환학생 -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수상

2019 학생성공-창의장학생

2020 도전X라이브 공모전 영상부문 장려상
인성함양프로그램 '흥인' 우수사례 장려상
지역사회발전 '참(Charm)' 대학 연합 프로젝트 대상
상소공모전 장원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오거서 장학금
KDI(한국개발연구원) 막상막하 B급 홍보대회 캠퍼스폭발상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펀사이트트립(Funsight Trip) 3위
성균크리에이티브챌린지 장려상
학생성공-리더 장학생

2021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새내기를 위한 영상 공모전' 장려상
SKKU VISION 2030 포스터 공모전 장려상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모델 네이밍 공모전' 최우수상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
President's List 3기 선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AI X SW 해커톤 장려상
실전마케팅학회 SCAN X 포토이즘 산학협력 최우수상

2022 학부 PBL 공모전 장려상
실전마케팅학회 SCAN X 콴다 산학협력 장려상
실전마케팅학회 SCAN X SK브로드밴드&신협 산학협력 입상
여름방학 도전학기 교환 글로벌리더장학생

정 형 기 약학과 15

keyy699@gmail.com

2021학년도 약학대학 학생회장 활동

- 온라인 진로설명회 '팜터뷰' 개최(국내외 약학대학 동문 초빙)
- 랩미팅데이(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만남), 뽕약제행사(학부생 선후배간 소통 강화), SPOTlight 행사(신편입생 소속감 고취) 등의 개최를 통해 약학대학 학생들의 소속감 고취 및 진로 탐색 기회부여
-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기획국장 활동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라톤 행사 '팜들런' 기획 (기부문화 활성화)
- 봉룡학사 사생회 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 다수 기획)

김 나 연 러시아어문학과 19

nayeon0104@kakao.com

2023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Deep-Learning 공모전 1위
("문학과 회화의 음식코드를 통해 바라본 모스크바적 러시아 식문화의 서구화 양상")

2022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공공외교학회 공동주관 논문공모전 학부생 단독 입상
("문화공공외교의 개척 모델로서의 K-Food : 그 지속가능성과 실용성을 위한 모델 창조를 중심으로". 단일 저자)

2022 ~ The Korea Times 러시아어 통역

2021 외교부 한-러 사업아이디어공모전 유럽국장상 수상 (한국식 티푸드 브랜드 '담소' 기획)

2021 외교부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 3기 (K-food 부문 팀장)

2021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4기 (메뉴개발팀)

2020 지속가능도시 수원 UCC 콘테스트 수원시의회의장상 수상

2020 ~ 외국인을 위한 한식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어, 러시아어권 누적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명 이상. 2021 기준)

2019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3D프린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1위 (개인 맞춤형 마스크 디자인)
식품생명공학과 복수전공

PLus Book
두 번째 책을 출간하며

2021년에 이어 PLus Book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PLus Book은 President's List(PL)에 선발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모아 성균인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PLus Book에는 학생 성공의 롤모델인 PL 학생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성공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단상,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일, 대학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 법조인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조언, 대외활동 및 글로벌 경험 등 생생한 스토리를 통해 이 책을 읽는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세상에 없던 성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학생성공센터 센터장 현소혜

내가 좋아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삶

문헌정보학과/앙트레프레너십 19학번 **신민희**

안녕하세요, President' s List 3기 문헌정보학과/앙트레프레너십 19학번 신민희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삶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었습니다. 이 고민은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제게 "행복"은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자존감의 원천이길 바랬고, "성공"은 저를 빛낼 수 있는 성과이길 바랐습니다.

2021 President' s List에 선발이 되었을 때, 3학년 1학기였습니다. 대학교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좋아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게 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마인드 셋

대학교 1학년 때에는 학점이 좋은 선배들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공부만 했었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제 가치를 깎아 내렸습니다. 제 존재가치를 오로지 학점에만 초점을 맞췄던 마음가짐은 제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회적 안정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좋은 학점을 보면서 뿌듯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학점에 몰두하면서 사회적 규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과연 행복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허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두 가지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1.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존재 가치를 알기
2.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활동 해보기

Q. 저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게 제 삶의 목표를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만의 시간 속에서는 오로지 제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어 어떠한 감정, 성향, 취향,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호한 답변에서 명확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수많은 디벨롭(develop)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간략 설명) 저는 정말 무엇을 하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곧바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알아가는 데 더 많은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할 때 가장 눈빛이 빛나나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매우 복잡한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용이 추가되고 깊어질수록, 저는 그 생각에 고정되어 더 넓은 생각과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복잡해질 일이 많을 건데, 생각만이라도 간단하게 해야 실행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간!단!**을 추구합니다.

Q.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활동은?

공부 이외에 성취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분야는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키워드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실천하는 데에 큰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만 있어도 가능했습니다.

제게 환경이란, 현재의 저를 존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쓰레기가 최대한 발생하기 않게 텀블러가 없으면 take-out 커피 안마셨고 핸드 타올 대신 손수건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긴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저의 행동이 2020-2021 트렌드에 알맞았고, 더 널리 영향력을 더 발산하기 위해 작은 팀을 꾸려 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모전에 참가했고, 더 큰 무대로 나가 UN 부산학생지부 공모전에서 국회의원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관심으로 시작했지만, 환경은 학업 공부 이외에 가질 수 있는 생활 속 가치였습니다.

Q. 학업 이외의 가치를 찾아가려는 이유는?

일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찾을 줄 알아야 라이프 밸런스가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학업 가치" 라는 공식을 설정해두면, 한 쪽이 무너졌을 때 곧바로 일으킬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 학업 가치 + 생활 가치"** 공식을 세워 학생신분으로써 가져야 할 책임감과 한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내면의 가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Q. 좋은 대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좋은 대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삶을 따라하지 말고, 내 취향대로 사는 것"

특히, 한국 학생들은 남들이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향과 강점, 단점이 있는 데 자기 자신을 사회 규범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인의 삶을 본인에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큼의 성과나 성취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타인이 하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타인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매우 에너제틱한 사람이여서,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게 제 성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와 대체제가 있는 에너지로 앞으로도 계속 저만의 취향과 가치를 새로 알아가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세운 규칙 :
첫 번째, 다른 학생들과 나를 비교하기 않기.
두 번째, 나의 인생취향을 고집하되 유연성을 가지기.
세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하기.

네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 번 더 시도해보기.

다섯 번째, 내가 세운 목표가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기.

끝맺음

이 글을 쓴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성장 중인 아주 작은 병아리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인생 방향키를 잡는데 타인의 진심어린 조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때 굳건하게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게 그대만의 방향키를 만들어 그대의 인생 캡틴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성균관대학생활 꿀팁이 있다면?

스포츠과학과 18학번 **형수경**

President’s List 2기이자 2020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자 스포츠과학과 18학번 형수경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전해드리는 Q, 그리고 A.

Q. President List 선발 팁이 있다면?

A. 2020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 및 President List 선발 이후 멘토링 및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학우들이 2020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과 President List에 관심은 있으나 생각보다 관련 정보가 적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어요. President List는 학과별 추천 학생 1명, 그리고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자 중 선발하여 후보자로 추천이 되고 그 중 선별된 학생이 수상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0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수상하게 되었기에 학생성공스토리 수상 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몇 개의 대외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수상 경력은 어떠한 게 좋을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제가 수상을 한 이상 학생성공스토리의 선발 포인트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원 당시에 대단한 대외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쓴 수기는 한 교내활동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의미가 변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이었습니다. 2020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발표 후 교수님께 들었던 피드백은 거창하게 여러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다는 내용보단 대학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슬럼프를 극복한 내용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이 부분에서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이 충분히 롤모델로 삼을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결국,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 팁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내 스펙을 자랑하는 공모전이 아닌, 내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수기치인으로 극복했는지를 결과 위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담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Q.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것만은 꼭 해보고 졸업하세요!' 하는 교내 프로그램 Best 3은?

1. Future self design

국가대표라는 명사형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없어 해야 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을 시기에 킹고앱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 삶에서 20대는 어떤 시간이길 바라나요?
나의 강점과 나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탐색하고,
후회 없는 20대를 보내기 위해 나의 삶을 설계해보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Future-self Design 그룹 코칭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여러 멘토링을 진행하며 만났던 학우들께 꼭 추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대학 생활과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신입사원 교육에서 활용되는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나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20대 미래설계를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글쓰기 클리닉 (https://cec.skku.edu/cec)

2020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 이후, 수기집 초안을 작성하며 학생성공센터에서 글쓰기 클리닉에서의 상담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글쓰기 클리닉 선생님과 소통을 하며 초안을 수정해나가니 더 탄탄한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교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 클리닉인데요. 전공 보고서 및 논문 작성법, 에세이 작성법, 자기소개서 올바른 글

쓰기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의 대학 생활을 위해 수많은 센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두드리고 도움을 청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말 많고 선생님들께서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

3. 도전 학기 - 맞춤형 진로 네비게이션〉

학생성공센터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진로 네비게이션은 프레지던트 선발 이후 멘토로 참여했던 활동이었는데, 멘티로 참여했어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멘티로든, 멘토로든 추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만의 대학 생활을 설계하면서 자신감 및 도전의식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2021 도전학기 비교과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시행한 후, 오프라인 강의에서 성향/적성/선호도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복수전공/직무/진로를 분석하는 활동과 선배 멘토와 함께 대학 생활을 플랜을 세우는 '캠퍼스 라이프 매핑' 활동이 진행됩니다.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학우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도전 학기 프로그램입니다.

Q.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것만은 꼭 해보고 졸업하세요' 하는 대외활동 Best 1은? 〈KUSF: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https://kusf.or.kr/) 〉

체육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될 것 같아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는 스포츠 분야 직업을 꿈꾸는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선수 대학생, 과거 운동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퇴 후 대학 생활을 하는 선수 출신 대학생,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스포츠 관련 학과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스포츠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우들도 충분히 참여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총 6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캐나다 STOTT필라테스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기반 커리큘럼으로 STOTT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진행하는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과 스포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가 기능적 훈련법 및 근육/관절 테이핑 교육을 진행하는 선수 트레이너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스포츠데이터 분석 과정과 프로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분야 실무자 분께서 직접 스포츠마케팅 이론과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스포츠마케팅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분야에 필요한 미디어 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 미디어 과정, 대학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KUSF 대학스포츠 U-리그 취재 및 대학스포츠 관련 경기를 취재하고 기사, 카드뉴스,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포츠 기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KUSF 필라테스지도자 과정 1기로 활동 후, 우수학생으로 선발되며 감사한 기회로 STOTT 강북 호스팅 센터에서 근무하고 또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해나가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학우라면 졸업하기 전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꼭 경험해보시고 저와 같이 좋은 기회와 인연을 얻길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경제학과 17학번 **이찬주**

안녕하세요, 2020년 President's List 3기 수상자 경제학과 이찬주입니다. 후배님들과 이렇게 Plus Book을 통해 지면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염두하고 있는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입시를 치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점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정량적인 요소라고 언급되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점, 토익 점수에 대해서는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학년 후배님들이 자기소개서 등에 녹여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활동을 기록하세요.

대학을 다니는 학부 4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저는 재학 중에 입대 휴학도 있었기에 6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학년에 했었던 활동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로스쿨 자기소개서에서는 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느꼈는지를 서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활동이든 '기록'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활동이 단순히 학부 수업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에 대한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학기가 마칠 때, 한 해가 끝날 때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모든 활동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계기), 활동 중에는 무엇을 했는지(내용), 활동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지(소감)를 작성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둘째,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학부 재학 중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굳이 법학과 연관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많은 내용을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일관성 없는 활동들이나 공식적이지 않은 활동은 유의해야 합니다. 일관성 없는 활동은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호소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법조인을 꿈꾸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들을 계획하시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이지 않은 활동은 후술할 이유로 기껏 활동해 놓고 자기소개서에 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단체가 영세한 단체라면 그 활동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플랜 B는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많은 활동을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플랜 B가 주는 마음의 평안함' 입니다. 아직 로스쿨 입시를 다 마치지 않은 저도 로스쿨 입시가 주는 불확실성에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학부 재학 동안 최대한 많은 활동을 통해서 다른 진로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조금은 초연해지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생각한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모든 활동은 '증빙 가능' 해야 합니다.

증빙되지 않은 활동은 무의미합니다. 로스쿨을 비롯한 대부분의 입시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모든 활동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 어려울 확률이 높은 활동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학년 학생 분들이

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빙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두는 정도에 머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해 보세요.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것 자체로도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사고는 여러분의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하여 공모전을 도전한 경험은 여러분이 전공지식을 현실에 적용시켜 보았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공모전도 좋지만, 법학 관련 공모전은 더 좋습니다. 저의 경우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팀원과 함께 나갔습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직접 법률안을 만드는 만큼 들여야 하는 노력이 상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던 법학적 사고력이나 입법적 지식은 제가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제넘게 후배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입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가 저학년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 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우님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학생 성공' 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무엇을 해야하는가

소비자학과 15학번 **조진형**

안녕하세요, President's List 2기 조진형입니다.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도록 진로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정 진로에 대한 준비방법이 아닌 진로 탐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본인에 맞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 보통 다수가 준비하는 직장을 위해 비슷한 스펙을 쌓고는 합니다.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생각과 목적 없이 준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는 내가 평생 종사하는 업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진로가 삶의 질, 생애소득, 주변 환경 등 인생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탐색은 중요하며 성공실패 유무를 따지지 말고 여러 시도를 하며 본인의 업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진로결정은 소득, 전망, 적성,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행히 대학은 인생에서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기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떠한 도전, 시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졸업을 하거나 사회인이 되어서는 진로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대한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취준생의 1/30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준비는 1~2년 정도이지만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30~40년이 결정됩니다. 기존처럼 안정성이 보장될 것인지, 30~40년을 근무할 정도로 적성이 맞거나 앞으로의 전망은 나빠지지 않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 조직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1998~2017년, 약 20년 동안 채용한 공무원 수보다 지난 4년동안 채용한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는 국가보전금이 4조1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채용규모 및 근무여건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공직을 준비하는 이유로 크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라이브' 사이트는 대학생 홍준서씨가 개발한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공익은 반드시 공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부문도 경력직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포기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만약 본인이 공직에 맞지 않는다면 나갈 수 있는 라이센스나 경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공직에 입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 맞지 않는다면 민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순환 보직없이 한 분야에만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이 통과되었고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의 공적업무를 순환 보직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공무원 준비만을 위한 수험기간 리스크가 없으며 본인이 공무원이 맞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도 큰 문제없이 민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진로로 전문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변호사를 생각해봅시다. 요즘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모두 로스쿨 입학을 생각하고 있고 대기업, 사무관 등 직장인들도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 준비를 하는 추세입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합격하기까지 엄청난 양의 공부 량을 습득해야 하므로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법 전문가 등 변호사마다 엄연히 여러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로스쿨 입시에 앞서 어느 분야에서 일할지 고민하고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전문직 공급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현재 전문직의 처우와 전망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23년 1월부터 미확정 판례가 공개되면서 리걸테크라는 분야가 변호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판례가 많아지면 정확도는 상승할 것이고 리걸테크가 변호사의 많은 업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들이는 시간과 비용,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해당 업계의 전망 및 처우를 고려하면서 지금 본인이 이만큼의 노력, 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 로스쿨 입시는 매우 치열해졌기 때문에 만약 LEET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종사하고 싶은 분야의 경력을 쌓거나 리걸테크 쪽으로 더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리걸테크, 변호사 업계의 포화로 앞으로 변호사 대우는 이전보다 좋지 않아 앞으로 로스쿨 입시난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뛰어난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출하는 경향이 감소하여 나중에는 합격난이도도 지금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적성시험의 특성상 전업공부의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경력 등을 쌓고 이후 로스쿨에 진입하여 변호사가 되신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와 같이 앞으로 여러분이 진로를 고민하고 설계할 때, 추후 시대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공적부문의 적자 증가 등 미래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역량을 고민해본다면 대학 생활동안 여러분이 키워야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다수가 준비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특정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등 합리적이어야 하고 앞으로의 경쟁률 및 전망추세를 고려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평생 해야하는 업이기 때문에 적성, 전망,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무시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녀도 능력 대비 성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장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다보면 할 만한 직업이 없다.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특정 직업을 갖는다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만 아무리 치열한 레드오션이어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높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진로선택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본인이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 진로는 적성과 능력,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이 아닌 본인이 제일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탐색 다음으로 진로준비에 대해 첨언하자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시류 시험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최대한 많은 물을 넣어야 독이 채워지는 맥락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대의 1년을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찍 취업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정년까지의 소득증가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긴 시기를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이야 올라가겠지만, 그로 인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수험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실패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 운전자 70% 이상이 본인의 운전 실력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성공한 친구들을 보아도 1년만 더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까워 시험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데드라인이 중요한 것이고 냉정하게 성공만을 가정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시험이 적성 시험화되고 있어 공부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로탐색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좋은 제도 중 하나로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추천 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학과 제한 없이 선택하여 36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복수전공입니다.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공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복수전공이 어려울 경우에도 희망 학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원하는 수업을 이수 중간에 자설융 커리큘럼에 넣거나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 직무중심의 채용기조와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공기관에서 학과는 쓰지 않지만, 수강과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설계융합전공은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외에도 원전공의 9학점을 자설융에 넣을 수 있고 만약 학점을 높이고 인기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싶다면 추후 플랜B로 자설융을 미리 수강한다면 학점이 중복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학기 이수없이 3전공이 가능합니다. 5~6학기 이내 신청가능하며 학점이 아닌 학업계획, 교과목 포트폴리오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니(학기당 20명 내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자전거 같아서 일단 움직여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 초기에 본인에게 맞는 진로가 뭔지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본교의 c-school 제도 등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렵고 막막하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으니 계속 시도하시며 조금씩 본인의 적성을 탐색하고 착실히 준비하신다면 유의미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차게 보낸 대학생활로 깔끔하게 진로 탐색하기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 경영학과 19학번 **허정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President's List 3기 허정원입니다.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을 원전공,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가지고 있으며, 2022년 2학기에 4학년 2학기 재학 예정입니다. 신설학과의 특성상 저희 과에서 PL 수상자가 나온 것은 최초인 만큼, 전공에 대한 정보와 전공적합성을 살린 저의 진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평소 선후배 및 동기 여러분으로부터 "대학생활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만큼 4년 동안 제가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녹여, 독자 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전공진입에 대한 고민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저는 1학년 여름방학 쯤 전공진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입학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회과학대학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그리고 성균멘토님으로부터 추천받은 경제대학 경제학과를 고민하던 중, 글로벌융합학부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이라는 신설 학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교내외활동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유무형의 형태로 그들을 연결하며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에 매력을 느낀 저는, 콘텐츠의 A to Z를 배우는 해당 전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을 고려요소로 반영하는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여 본 학과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2 다다익선, 대내외활동으로 다양한 경험 쌓기

미래에 무엇을 하든 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내의 여러 기관(대학혁신과공유센터,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 링크사업단, 글쓰기 클리닉, 카운슬링 센터, 학생인재개발센터 등)들을 활용하여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공 덕분에 콘텐츠 관련 활동들이 눈에 띄었던 저에게는 여러 콘텐츠를 기획/제작해보는 활동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플루언서에 관한 트렌드 전반은 물론 간단한 영상편집까지 배울 수 있었던 "2019 SKKU 마이리틀텔리비전", 직접 센터까지 가서 유튜브 채널 개설과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을 배웠던 "2020 도전학기 인턴십 - 인플루언서 창업 실습", 그리고 포토샵을 처음으로 전문적인 커리큘럼 아래에서 배워 직접 디자인한 파우치 굿즈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연구해 책까지 출판한 "2021 성균공부방- 일러스트/포토샵, 단편소설 수업"까지. 콘텐츠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고 이를 구체화 및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저에게 전부 매우 유용한 수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홈페이지 및 해당 센터 공지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같은 등록금을 내더라도 두 배 세 배 알뜰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창시절에 그 흔한 반장, 부반장도 한번 해보지 않아 항상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회도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신설학부의 특성상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탓에, 처음 들어간 글로벌융합학부 제2대 학생회에서 무려 사무기획국장을 지냈으며 이어서 제3대 부학생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체를 처음으로, 그것도 최전선에서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식 및 사물함 배부와 같은 기본 사업부터 방학 중 친목도모 프로그램과 콘텐츠 공모전 같은 추가사업은 물론 학사개편 관련 부가 업무까지. 학생회라는 단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학생자치의 기능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식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본인이 시간을 쏟고 싶은 단체는 다를 수 있으나, 애교심을 갖고 있으며 교내 행정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자신에 속한 곳의 학생사회를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학생회를 한번쯤은 정말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입학 전부터 가자고 다짐했던 교환학생도 대학생활 중 꼭 해봐야 할 활동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2 여름방학 도전학기에 글로벌리더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UCLA(University of Calfornia, Los Angeles)로 교환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외국 학생들의 태도를 많이 배웠고, 교수님 역시 외국인 학생인 저를 배려

하셔서 쉬는 시간마다 진도 이해 여부를 물어보시며 어느 한 명의 학생도 뒤쳐짐 없이 따라오도록 챙겨주셨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교환학생과 유학생, 그리고 재학생을 만나며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생각의 폭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꿈을 꾸든 웬만큼 그 크기가 작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고고익선, 활동들과 진로 간의 연관성 찾기

그렇다면 이제 이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에 진입한 후, 저는 많은 전공수업 중에서도 작곡과 오디오 편집 수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무색이던 영상에 bgm이 다채로운 색을 입히듯,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몰입도를 한결 높여주는 음악의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이후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음악감독 및 사운드 디자이너를 꿈으로 여러 관련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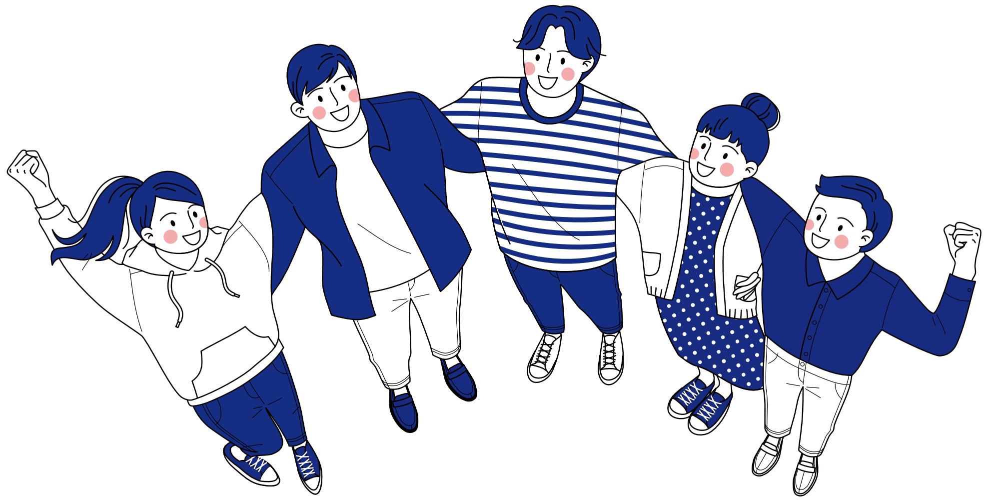
특히 대외활동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앱인 '틴더(Tinder)'의 공식 앰배서더로 활동했던 '틴더플레이메이커(Tinder Playmaker, 이하 틴플메이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사회적 상황을 버스킹으로 표현하여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직접 멜로디 메이킹 및 작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첫 버스킹은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시청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고, 저는 음악이 가진 메시지의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후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께 진로상담을 주구장창 다녔습니다. 수강했던 작곡 수업의 교수님은 물론 음악을 전공한 지인들, 그리고 타 학교 학점교류로 뵈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님들 등 사소한 것이라도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고, 이를 참고해 앞으로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막막한 상태에 있는 것과 도움을 위해 한 발자국 용기를 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엇이든 가려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무리하며

지금은 우리가 도전하기에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주토피아'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인들이 하나둘씩 저마다 진로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수록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 내가 좋아

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꿈을 꾸기에 대학생만큼 적절한 시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만 주어지는 혜택, 정보,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알차게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멋진 대학생활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

약학과 15학번 **정형기**

안녕하세요. President' s List 3기 약학대학 정형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선택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수강 신청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가입, 진로 결정까지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고 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이 없는 선택지들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어렵게 합니다. 누가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럴 리 없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르게 될 겁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다시 돌아보면 대학생활은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역할을 해보며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었어요. 저를 자세히 알고 저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결정을 할 때나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도 도움을 주었고, 이렇게 내린 결정은 후회도 덜하게 되더라고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대학 생활동안 어떻게 저에 대해 알고, 어떠한 기준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소한 기회도 다르게 바라보자
2. 막상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3. 나만의 환경 만들기
4.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법
5. 스스로 질문하기

글을 읽으실 때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소한 기회도 다르게 바라보자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 "대학 생활 동안 뭐했지?"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많은걸 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차이는 사소해 보이는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부터 크고 작은 대외활동, 많은 학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그냥 스쳐 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 낭비"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다 보면 사소해 보였던 경험들이 쌓여 상상도 못한 기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에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했던 동아리, 학교 프로그램, 크고 작은 활동들은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작은 시도들은 학생회 일원으로, 나아가 학생회장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의 기획국장이라는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행사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하나하나 직접 해보았던 경험들은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며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들도 지나고 보면, 커다란 기회와 성장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사소해 보이는 기회라도 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일단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2. 막상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두렵고 많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결과에 대한 불확실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시작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하지만, 익숙해지며 점차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하느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대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다 보면 "처음엔 두려웠었는데, 막상해보니 별거 아니더라?"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결국엔 잘 해낼 거잖아?"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믿고 계속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이 무섭고, 잘해내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막상해보면 별거 아닐 거야. 결국엔 잘 해낼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 해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3. 나만의 환경 만들기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환경은 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도서관, 카페와 같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좋아하는지 알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저는 학교 공부도, 친구들과 노는 자리도, 다양한 활동도 다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입학한 처음에는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잘 해내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신나게 놀다가 시험이 직전에 다가와서야 공부를 시작하고, 밤새워서 공부하다 중간고사에 30분이나 늦어보기도, 시험 도중에 졸아본 경험도 있답니다. 철야도 해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러한 노력은 학생회장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기획국장을 동시에 맡아 활동하면서도, 성적장학금을 받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발견한 저만의 시험공부 루틴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다음날 오전 시험을 위해 전날 오후에는 잠을 청하고, 늦은 저녁을 먹은 뒤에 새벽 3시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2~3시간 쪽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여는 카페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이러한 저만의 루틴은 아주 높은 효율을 내게 해주었고, 시험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며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알아내는 건 어떤 노력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에요.

4.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법

우리는 오늘 뭐 먹지와 같은 일상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정까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의견을 들으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하지만, 모든 의견들이 다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아니기에, 그 말을 들을걸, 그러지

말걸 후회하며 매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처럼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에게 선택을 맡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가볍게 흘려 듣지도 않으면서, 그 말속의 핵심 정보와 새로운 관점, 인사이트를 얻고 판단의 근거를 쌓는데 활용하려고 해요. 자신의 확신, 신념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줄거에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사람 말에 휘둘리기보다 본인의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세상에만 머물면 안되겠죠. 다른 사람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되,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쌓는 것이 어떤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큰 자산이 될 거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5. 스스로 질문 던지기

잠시 멈추고 시작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

저는 하는 일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곤 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었기에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들과 혹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경계하려고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이유나 목적도 모른 채 하는 건 의욕을 떨어트리고,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걸 하고 있지?", "이 일에 시간을 쏟는 이유는?"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단지 시작을 했기에 계속할 이유가 없음에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이전에 그렇게 해왔기에 상황이 바뀌었어도 똑같이 유지하는 건 아닐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 발짝 물러서서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다시 목표를 잡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의 장단점을 나열해보자

진로를 결정할 때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마다 어떤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선택지에 대해 생각나는 장단점을 모두 나열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해 보이고 서로 얽혀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선택지에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보는건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나'이고, '내'가 감정, 책임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끔은 멈추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새로운 방향을, 원동력을 갖는 시간이 될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마음속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글을 마치며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은 많은 경험들을 하며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정글과 같은 현실과 마주하기 전에 많이 부딪혀보고,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며 스스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는 없지만 해외 경험은 쌓고 싶은 학우들을 위한 Tips!

러시아어문학과 19학번 **김나연**

안녕하세요, President's List 3기 수상자이자 K-Food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러시아어문학과 김나연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면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것이라는 큰 꿈을 품고 입학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국내조차 돌아다니기 힘들어졌고 이제 고학번이 되니 일신상의 이유로 시간과 돈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러시아어문학 전공인데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전쟁 사태가 발생하여 결국 졸업까지 러시아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고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제가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또한 오로지 국내에서 쌓은 다채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러시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러시아어를 공부했을까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과 교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1. 첫 시도는 교내 국제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부터

저의 첫 외국인 대학생 친구는 LC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1:1로 매칭하여 자유롭게 교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중국인 여학생과 매칭되어 같이 닭갈비를 먹고 케이크를 후식으로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글로벌 버디에서 매칭되는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대부분 할 줄 알아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캠퍼스를 돌아다녀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생이 대부분이라 주로 중국인 학생과 매칭됩니다. 영어권 학생을 만나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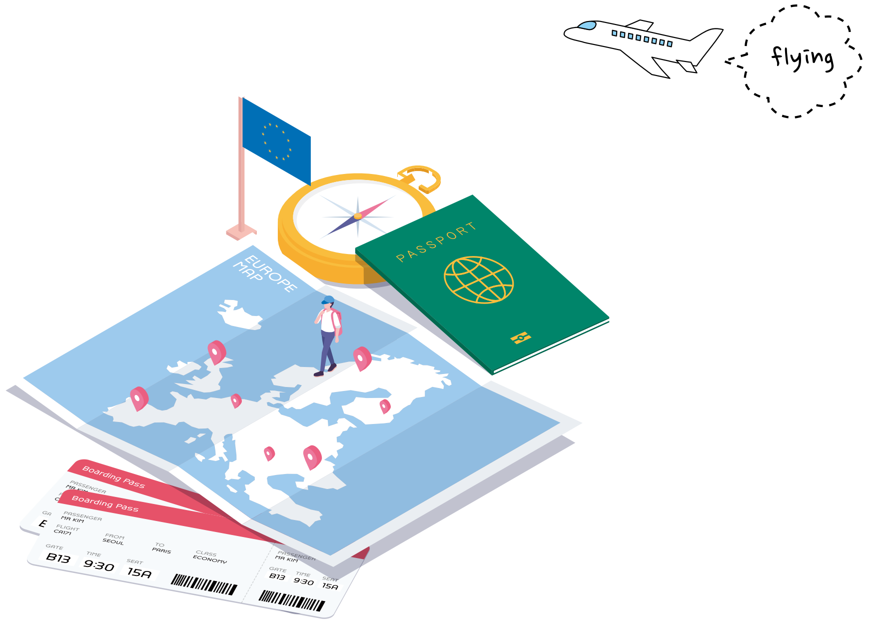
그럴 경우 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SG Maple 또는 하이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직접 참여해본 경험은 없지만, 주변 친구들로부터 좋은 후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학내클럽은 주로 교환학생 친구들이 성균관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도와주거나 주말에 그들을 데리고 서울 투어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환학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국적도 정말 다양하고 영어로만 소통하기 때문에 특히 영어로만 대화하고 싶은 학우분들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인솔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 능력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것 또한 덤입니다.

2. SNS 운영에 자신있다면, 외국어로 SNS 또는 외국어로 콘텐츠 제작하기

제가 한식에 대한 큰 포부를 갖게 해준 가장 결정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취미이자 특기가 요리인데요, 코로나 펜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저는 제 요리를 콘텐츠로 만들어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하고 그 시장 또한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되면서 단기간에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같은 요리 콘텐츠도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갈망하던 저는, 제 전공인 러시아어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근자감'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당시 러시아어를 배운 지 정확히 반년 지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 요리, K-Food를 알리겠다며 전공 회화책에 나온 각종 러시아어 표현과 요리 용어를 달달 외워서 하나씩 콘텐츠를 업로드 하였습니다(지금 보면 초창기 영상의 러시아어 실력은 정말 엉망진창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중앙아시아 국가 외국인들은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팔로워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사실 러시아어는 한국에서 인기있는 외국어가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국내에도 적은 편인데요, 한류 열풍으로 러시아 또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그들의 언어를 하는 젊은 한국 여학생인 제가 무척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S를 러시아어로 운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저는 솔직히 초반에는 유명세를 얻는데 주목적을 두었지만, 제 러시아어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덕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한식 레시

피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위해 러시아어로 대본을 쓰고, 암기하고, 자막을 입히면서 또 복습하게 되고, 업로드 후 러시아어로 작성된 댓글을 하나하나 번역하고 다시 답글을 작성하는 과정은 제 러시아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SNS이기 때문에 실제 원어민이 쓰는 slang이나 구어체 표현을 쉽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팔로워분들이 제 러시아어 문법을 댓글로 지적해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SNS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다면, 주저 말고 아무 말이나 외국어로 적어 업로드해보세요! SNS의 가장 큰 장점이자 순기능인, 시공간의 제약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어떠한 악재 상황에도 상시 근무 중인 주한대사관,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국가 기관 대외활동 참여하기

코로나 펜데믹으로 하늘 길이 막혀도,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어도,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교류 관련 국가 기관들은 호재에도 악재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기업의 해외 부서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이시라면 꼭 집중해주세요! 제가 경험한 활동들을 토대로 설명 드리자면,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외교부와 한러비즈니스협회에서 주최하는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 활동에 참가하고 '한-러 사업아이디어 공모전'에 같이 출전하였습니다. 당시 비대면 수업만 주구장창 듣고 있던 러시아어 문학과 동기들에게 이 활동을 팀으로 참여하자고 제안하면서, 제 대학생활의 가장 큰 추억을 만들어준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러시아 파견까지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대신 활동비를 많이 받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 및 러시아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분들과의 미팅을 주선해주셨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역시나 K-Food를 사업아이템으로 정해 무려 6개월 동안 발전시켰는데요, 러시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셨던 대표님께 자문을 구하고, 롯데 등 러시아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대기업 임원들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피드백받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러시아인 대학생들로부터 저희 제품을 직접 시도해보고 평을 남겨주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알짜배기 느낌으로 국내에서 러시아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 국내 정세의 변화가 우려되어 '유라시아청년미래개척단'으로 명칭이 바뀌어 활동 국가를 러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 관련 활동으로 임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외 관련 악재가 발생하면 지원 범위가 바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 기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계 증진에 힘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관련 일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어느 나라든 이러한 가변적 정치, 경제적 요소에 잘 대처하는 능력도 하나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을 갖고 값진 경험에 목 마른 학생들이니까요, 이러한 국가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외활동을 잘 살펴보고 참여해보도록 합시다.

4. 대학생 번역, 통역은 언제나 수요가 많다

해당 부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인기 외국어를 제외한 그 외의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제 2 외국어는 스포츠, 기업 박람회, 컨퍼런스 등 통번역 알바를 구하는 과정이 영어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특수어는 더욱 그러하죠. 통번역 알바는 상급의 실력자들만 가능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들은 가능자가 희귀한 언어일수록 중급자들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말 그대로 '가능' 만 하다면 별도의 테스트 없이 그냥 채용하겠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 과 선배들은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러시아인 또는 러시아어권 외국인 선수가 경기 전후 인터뷰하거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는 알바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 코리아 타임즈(The Korea Times)에서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어권 난민이 많아지고 러시아어 통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통번역자 인력 풀에 현재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혀 실력이 완벽하지 않고 저는 아직도 러시아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편인데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제 2 외국어를 전공하는 분들이시라면 학과 공지를 통해 수소문하거나 선배들께 연결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방법이 있고, 대외활동 모집 사이트에도 자주 올라오니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도전학기 국제하계학기(ISS) 해외파견 교환학생 딱 2주~한 달 맛보기

2022년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도 하나 둘씩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려왔지만, 막상 때가 다가오니 저에게 남은 시간과 경제적 상황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보통 유럽이나 영미권은 한 학기 이상 다녀올 경우 생활비까지 천 만원 단위로 지출이 나가고 교환학생을 갈 경우 저는 무조건 추가학기를 수강해야했기에 마주한 현실은 꽤 슬펐습니다. 하지만, 우리학교 도전학기 제도에는 교환학생을 단기간만 다녀올 수 있는 국제하계학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처럼 해외를 장기간 나갈 여유가 없는 학생 분들에게 정말 '강.추.'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은 보통 겨울~봄 정도에 진행되고 1학기 동안 파견 서류를 제출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명문 사립경영대학교 IESEG에서 Wine Business 단 한 과목을 2주간 수강했습니다. 저의 경우 2주, 학교에 따라 2과목 이상 수강할 수 있으며 최대 한 달 머무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알찬 여름을 보냈습니다. 개인 여행은 물론이고 전공 교수님과 학생들과 와인 공장과 포도밭 견학도 다녀오고, 파리 유람선도 태워주고, 관광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정규학기 교환학생보다 파견 국가의 수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홍콩,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포함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드리자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제가 지원했을 당시 기준으로 총 학점이 4.5에 근접해야 할 정도로 매우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영국 Leeds 대학교는 합격선이 4.5/4.5였기에 저도 이 학교는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합격할 경우 계절학기 수강료는 전액 지원입니다. 기숙사비, 해당 학교 행정비, 여행비, 항공료 등만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짧게 수업 듣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다면! 꼭 관심 갖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인 쇄 일 2023년 2월
발 행 일 2023년 2월

발 행 처 성균관대학교
기 획 · 편 집 학생성공센터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국제관 1층
T. 02-740-1768
제 작 성균관대학교 President's List

디자인·인쇄 이아임디자인
(12939)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7번안길 25 A동 703호
T. 070-7558-2486